

3/18/18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권세에 대한 자세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3:1-7

-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 (롬 13: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 (롬 13: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절관주** 삼하 23:3
- (롬 13: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절관주** 딤후 1:9
- (롬 13: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 (롬 13: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 (롬 13: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본문은 최근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성경 구절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촛불 집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태에 대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행동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강대국들과 독재자들이 본 절을 악용하여 다른 나라나 국민들을 탄압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본 절을 근거로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 국왕과 정부에 충성을 다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친일에 합세했던 한국 교회도 일본 군국주의와 총독부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 독재와 국가 폭력 앞에서도 많은 교회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들에 본문을 적용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의 저자 사도 바울이 이 절을 그런 의도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썼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사도 바울 자신이 했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여 식민지화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으며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었지만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며 결국 로마 법정으로부터 사형을 선고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본문이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였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산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행 불일치의 삶, 비성경적인 삶을 살았다고 보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본문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국가의 폭력과 독재 앞에서 침묵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쓴 의도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권력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동시에 권력자들에게 권력의 본질을 가르치는데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권력의 본질을 가르치는데 빙점을 두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권력자의 통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권력이 원래의 주어진 목적을 벗어났을 때에는 통치의 정당성을 소멸시키고 저항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들'이란 국가 및 국가의 공식적 대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얼핏보면 국가 및 국가의 공식적 대표자들에게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말은 권력의 절대성 보다는 오히려 권력의 상대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신같이 여기는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가 신같이 여기는 황제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상대적 권력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권력의 근원, 권력의 수여자, 권력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황제를 권력의 변방, 권력의 수혜자, 권력의 종으로 바꾼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하늘과 지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함으로써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지존을 황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롬 13: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롬 13: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무섭게 치리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받은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자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롬 13: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원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권력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한 것은 로마 황제에게는 치욕적인 표현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절을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자를 세우시는 것은 권력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공적 유익 곧 공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당시 무지한 사람들에게 권력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백성은 권세자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권세자는 국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워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국민이 권력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람들의 무지한 사고를 '권력이 국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권력은 단지 권력가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는 권력, 공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권력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권력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권력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권력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절은 겉보기에는 권력에 복종만을 강조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향해 혁명적인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롬 13: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권세에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했으므로 양심에 반하면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롬 13 장 5 절을 근거로 메리 여왕과 투쟁했었습니다.

그때 청교도 목사 윌리엄 브리지 (William Bridge)는 웨스터민스터 교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롬 13:5 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

스코틀랜드 청교도 목사 사무엘 러더포드 (Samuel Rutherford) 는<법과 왕> (The Law and the Prince) 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왕도 법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고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백성들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 왕이 죽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 지라도 백성들의 동의와 추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직자가 공권력 (public power)을 갖게 된 것은 국민들이 투표나 추대 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 각자의 권리를 공직자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공직자의 관계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국민은 공직자에게 공권력을 위임해 주고 공직자는 위임받은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으로 세워진 공직자는 계약을 지켜야만 공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위임받은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계약을 깨뜨리면 국민도 계약을 위반한 공직자로부터 위임해 준 공권력을 거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Recall, 국민 소환권'입니다.

만약 이 때 공직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면 국민은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근대 민주주의의 이론이 바로 로마서 13 장 본문 본절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롬 13: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롬 13: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공직자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국민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014 년 4 월 16 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객 304 명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결국
이 사건이 단초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고가 난 것이 왜 대통령 잘못이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사고가 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의 후속 조치를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국민은 이런 상황이 닦쳤을 때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가는 모든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의 주권 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을 경우 권력에 존중과 복종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벗어날때는 일어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초안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고 자신들의 권한들을 위임해 주어 공권력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 때 국민이 그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일에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법은 아는 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르고 깨끗하고 비굴하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박힌 노예 근성을 뿌리 채 뽑아내고 모든 상처와 썩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 놓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